

# ‘민주화·통일운동 거목’ 문익환 생애 다룬 뮤지컬 첫 선

서거 30주기 맞아 ‘늦봄의 길’ 2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독재·분단 대항한 사회운동가

일생을 독재와 분단에 맞서 민주화·통일 운동을 앞장서 펼쳐 온 고 문익환 목사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고 문익환 목사 서거 30주기를 맞아 뮤지컬 ‘늦봄의 길’을 오는 23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2층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늦봄의 길’은 끝나지 않은 민주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민주화·통일 운동의 거목 문익환 목사의 생애 중 1970~1980년대를 배경으로 그린 뮤지컬이다.

‘늦봄의 길’ 공연 1막은 꽃다운 젊은 청년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우정과 우애를 담는다. 2막은 문익환 목사(왕시명 배우)의 민주구국선언문 작성으로 투옥되는 장면



뮤지컬 ‘늦봄의 길’ 출연배우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문익환 목사의 생애를 다룬 이 뮤지컬은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으로 시작한다. 그의 아내 박용길 장로(이나영 배우)를 필두로 투옥자들의 아내들인 공덕귀(장유정 배우), 이희호(오하은 배우), 페이문(김재인 배우)의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실제 당시 구속자 가족들은 옥바라지하며 기독교에서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부채와 우산 등을 들고 시위했다. 해외에 소식을 알리고 모임을 주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시대의 탄압에 맞서는 모습이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의 현실에 통탄하는 인물인 한지영 역을 맡은 양희연 배우,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하는 이우정 장로 역의 정채린 배우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의 연출·각색을 맡은 제작기획사 ‘프로젝트 다상’ 소속의 황자람 연출

가는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탄생시켜 극의 서사성을 더했다”며 “단순한 극 전개를 위한 대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장면과 인물들을 통해 당시 일어났던 임시검문, 분신자살사건 등 시대의 초상들을 보다 몰입감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늦봄의 길’은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사업이다.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돼 지난 2021년 11월 남동콘서트 형식으로 대중에게 첫선을 보였고, 이어 2023년 11월 경기도 성남과 화성에서 갈라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처음 무대에 오르는 이번 뮤지컬 제작에는 문민지 프로듀서, 황자람 연출·각색, 구모곤 작곡·작사·음악감독, 김현희 극작(원작), 김은총 안무감독 등 주요 제작진과 (주)예술기획과홀로의 백형기 대표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다.

고 문익환 목사는 1918년 6월1일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난 신학자이자 시인, 사회운동가다. 서울 한빛교회 목사로 일하

던 그는 1975년 친구였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목도하고 유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뛰어든다.

그는 1976~1993년 총 6회에 걸쳐 투옥된다. 1976년 3월 ‘3·1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돼 22개월 만에 출소했지만, 1978년 10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고 이후 1980년 5월 ‘내란예비음모죄’, 5·3인천항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문 목사는 출소 후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여생을 보냈다. 1989년 3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의 2차례 회담 끝에 통일 3단계방안 원칙에 합의했고 1993년에는 통일맞이 7000만 겨레모임 운동을 제창하는 등 1994년 1월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민주화·통일 운동에 전념했다.

공연 관람은 13세 이상이며, 예약은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062-670-7443)으로 하면 된다. 관람료는 S석 1만 원, A석 5000원.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 ACC, 내달 20일 ‘2024 송년음악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 주제 김현철·장필순·메이트리 등 출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달 20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4 ACC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ACC 송년음악회’는 매년 다채로운 구성과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올해도 탄탄한 하모니의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송년음악회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 그 노래’를 주제로 펼쳐진다. 1부 무대는 세계적 보컬그룹으로 인정받는 메이트리가 아카펠라와 함께 노래하고 영

화음악 전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 심포닉아르모니아(지휘 김재원)가 1부와 2부 연주를 맡는다.

1부 공연에서는 영화 속 장면만큼 아름다웠던 추억의 영화 음악들을 만날 수 있다. 영화 ‘라라랜드’의 오프닝 곡인 ‘Epilogue’로 막을 올리고, ‘알라딘’ 주제곡인 ‘Colors of the Wind’, ‘시네마 천국’의 ‘Cinema Paradiso’ 등 주옥같은 명곡 연주가 이어진다.

1부의 마지막 곡은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화인 ‘나 홀로 집에’의 ‘Holiday Flight’이 장식한다.

2부 무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김현철과 장필순이 무대에 오른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와 ‘달의 물막’,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와 ‘제비꽃’ 등 명곡들을 부를 예정이고 이후 김현철과 장필순의 듀엣 무대도 펼쳐진다. 이들이 함께 부르는 곡 ‘잊지 말기로 해’ (김현철 작곡, 장필순 작사)는 1989년 장필순 1집에 수록된 곡으로 발표 이후 30여년 만에 재회 무대를 갖는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1차 티켓을 오픈한다.

1차 티켓 구매자에게는 얼리버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2차 티켓오픈은 오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예매와 자세한 정보 확인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할 수 있다.

**박찬기자**



오는 19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학생 예술동아리인 ‘락뮤’가 선보이는 뮤지컬 ‘강항’이 개최된다. **영광교육지원청 제공**

## 영광학생 예술동아리가 선보이는 뮤지컬 ‘강항’

19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영광지역 학생들이 강항 선비의 절의 정신을 담은 뮤지컬을 선보인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학생 예술동아리인 ‘락뮤’가 선보이는 뮤지컬 ‘강항’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의 시작은 지난 2019년 ‘수은 강항 선생 일대기’와 ‘강항의 노래’가 전남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돼 제작된 데서 시작된다.

강항의 노래는 지난 2019년 8월5일 광주에서 열린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전공연’ 무대에서 광주팝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처음으로 올려 퍼졌다.

이어 강항의 노래 콘서트가 문화재청에

서 후원하는 2019년 서원·향교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불갑사를 찾는 관광객과 영광군민들에게 수은 강항 선생과 영광 내산서원을 널리 알렸다.

또 2020년에는 극단 ‘깃발’에 의해 ‘강항, 승리의 역사를 쓰다’로 연극으로는 처음 무대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강항 관련해 관내 초등학교 중심으로 일본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맞춰 강항로드(ROAD) 탐방을 지난 9월, 10월 2차례에 걸쳐 다녀왔다.

11월 현재 영광 불갑초등학교, 묘량초등학교 학생과 일본 에히메현 국립 신곡소학교(교장 고니시 요시아키)학생이 화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기자**

## 전남대박물관, 정승주 작가 유작전... 30여점 전시

27일까지 ‘화향, 기억의...’ 주제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정승주 작가 유작전을 오는 27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화향(花香), 기억의 향을 담다(사진)’를 주제로 정승주 작가의 예술세계를 망라하는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승주 작가의 작품을 △재현의 시작 △표현의 상징성 △순수성을 향하여 등 시기별로 나누고, 시기별 대표작으로 구성해 작품세계로의 몰입을 돕는다.

지난해 작고한 정작가(1940~2023)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와 급변하는 화단

의 흐름 속에서 아카데미 화풍을 토대로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구상 화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연 풍경, 해녀와 어부의 삶, 설화, 꽃과 여인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연작들은 색다른 화면 구성과 색채 변화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물과 비례와 균형을 이룬 안정된 구도, 서정적 색감의 조화는 송고함마저 자아낸다.

정금희 전남대박물관장은 “정승주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꽃향기와 저마다 느끼는 그림향이 어우러져 진한 그리움과 추억에 스며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환기자**



## 전남문화재단, ‘마한역사 청소년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28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서

전남도도와 전남문화재단은 ‘마한역사 청소년 토론대회’ 참가자를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모집

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마한 국제학술문화제’의 일환으로, 마한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한 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 주제는 △1500년 전 마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마한 문화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어떨까? 등 초·중·고등부별로 각각 제시된다. 참가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마한 역사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누구나 팀(교사1, 학생4)을 꾸려 참여할 수 있다. 토론대회는 행사 당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고,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전남도지사,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상을 수여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중국·일본 역사서 또는 고고학적 성과에 의

존하고 있는 ‘잃어버린 왕국 마한’을 상상하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다”며 “이번 청소년 토론대회에서 지금껏 나온 사료, 유적·유물을 모티브로 마한을 꿈꾸고 상상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참신한 생각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대회 당일 마한 국제학술문화제 기념식, 부대행사 등에서 마한과 관련된 인문학 살롱, 특별전,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박찬기자**